

전남개발공사, 종합청렴도 '전국 1위'...공직문화 조성 앞장

지방공기업 단독...4년만에 5→1등급 '청렴 역전극'

장충모 사장 "도민 신뢰 보답 위해 공정·투명 최선"

전남개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공기업 중 단독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개발공사는 청렴노력도 부문 9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외부 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단독 1등급을 획득하며 전체 1등급을 달성했으며 명실상부한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21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던 개발공사가 강력한 반부패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4년 만에 이뤄낸 비약적인 성과다. 2022년 3등급, 2023년과 2024년 2등급을 거쳐 올

해 1등급에 도달하며,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한 최고 등급 기관으로 등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공사는 그간 부패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방공사 최초로 '준법감시위원회'와 '자체 부동산 투기 방지 시스템'을 도입·운영으로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 중이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인 '동행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또 정부의 AI정책에 부응해 구축한 AI 청렴챗봇 시스템과 외부 협력사까지 청렴교육 범위를 확대한 '청렴을 품양' 캠페인은 청렴 시책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종합청렴도 1등



전남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공기업 중 단독 1위를 차지했다.

급 달성은 전 임직원이 중심 어린 청렴 의지로 공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평가 '최우수'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화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실적과 사용률, 사용자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공, 홍보 실적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과 1차 지급 인원 5만 9707명 (99.4%), 2차 지급 인원 5만 6812명 (98.3%)이라는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또 △신속한 지급체계 구축 △거동 불

편자 발급 및 찾아가는 신청 운영 △사용처 확대 △소비 촉진 이벤트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등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인정받아 평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며 신속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화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추가 확보했다. '나눔'을 받아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수협중앙회, 섬박람회 입장권 1억 구매약정 동참

여수해양수산단체 이어 해양수산 분야 참여 확산

(재)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수협중앙회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1억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해양수산 분야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섬박람회 취지에 공감하며 수산 분야 11개 단체가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이어 전국 단위로 섬박람회 지지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섬박람회

는 대한민국 해양·섬의 가치와 미래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수협중앙회도 해양수산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관광과 홍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은 "(여수시)은 "여수해양수산단체의 참여에 이어 수협중앙회가 동참해 주신 것은 섬박람회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장권 판매 확대와 섬박람회 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수협중앙회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1억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며,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이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도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및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군, '건강드림 행복버스' 5000명 지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복지 사각지대 해소

함평군은 올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한 '건강드림 행복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운영, 군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었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올해 총 176회 건강버스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군민에게 보건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행복버스를 통해 양방·한방·치과 진료, 기초 건강검진, 만성질환 예방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발마사지, 네일아트, 난타·노래·체조교실 등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신체 건



강은 물론 정서적 만족도까지 높였다.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 수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보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권 기자 6263739@gwangnam.co.kr

GICON, '2025 친환경·나눔 캠페인' 성료

지역 기부 문화 확산·탄소중립 실천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연말을 맞아 진행한 '2025년 GICON 친환경·나눔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GICON 임직원뿐 아니라 늘



불마인드, 더일러스트아트, 블루밍비주얼, 보나드스토리 등 지역창업특화지원 입주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내뿜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와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아름다운 기부, 폐전자제품 수거가 전개됐다. 폐전자제품 수거 캠페인은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협력사업(미디어(Media Recycle))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 또 광주실감콘텐츠즈(GCC) 로비에

수거함을 설치해 선풍기, 보조배터리, 가습기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하고 E-순환 거버넌스 기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및 유관기관 간 ESG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과 입주기업이 함께 탄소중립과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보성군은 최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성군,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3년 연속 선정...포상금 650만원

보성군은 최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65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보성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실적, 긴

급복지 지원 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써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직원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씨름선수 김민재(오른쪽 두번째)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천하장사 김민재, 나눔문화 확산 앞장

장흥군에 500만원 기탁

씨름선수 김민재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군 화진면이 고향인 김민재 선수가 지역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재 선수는 "고향 장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민재 선수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